20종 차량 한 곳에…호남 첫 '제네시스 광주' 개관

제네시스가 호남 첫 '제네시스 광주' 전시관을 개관했다.

9일 제네시스에 따르면 하남, 강남, 수지, 안성, 청주에 이은 국내 여섯 번째 전용 전시관 '제네시스 광주'를 지난 6일 오픈했다.

'제네시스 광주'는 호남 지역 최초의 제네시스 전용 전시관으로, 제네시스의 전 차종 라인업을 직접 보고 시승하는 것은 물론 다양한 전시와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는 거점 공간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에 위치한 '제네시스 광주'는 지상 7층, 지하 3층 구조로 구성됐으며 연면적은 제네시스 전시관 중 최대 규모인 9천881㎡(약 2천994평)다.

'제네시스 광주'는 '빛과 반영의 직조'를 콘셉트로 디자인됐다.

'빛과 반영의 직조'는 빛과 물의 도시 광주가 지닌 지역적 특성에서 영감을 받은 것으로, 빛과 주변 풍경이 수면과 건축물에 비치며 마치 실을 엮듯 하나의 공간으로 어우러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제네시스 광주'에는 총 20대의 전시 차량과 함께 브랜드의 디자인과 기술, 라이프스타일을 다채롭게 경험할 수 있는 특화 공간이 마련됐다.

1층과 2층에는 고객을 맞이하는 리셉션과 시승 및 차량 인도를 위한 전용 공간이 조성됐다.

여섯 번째 전시관…국내 최대 규모

1-7층까지…층별 특화 공간 마련

특화 시승·오너케어서비스 등 제공

특히 시승 라운지에서는 제네시스의 시그니처 티를 즐기며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해 세심한 환대를 경험할 수 있다.

3층부터 5층까지는 고객들이 제네시스의 전 차종 라인업을 만나볼 수 있으며, 다양한 차량 CMF(색상, 소재, 마감)를 살펴보고 조합해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제네시스는 골프 등 다양한 라이프스타일 컬렉션을 차량과 함께 전시해 브랜드 경험이 고객의 일상으로 확장되는 기회도 제공한다.

6층은 제네시스 브랜드의 미래 비전과 디자인 철학을 보여주는 특별전시 공간으로 활용된다. 개관을 기념해 GV90와 GV90 네오룬을 전시해 고객들이 제네시스가 추구하는 미래 럭셔리의 가치를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7층에는 제네시스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인 '오너스 라운지'와 루프탑 카페 및 테라스가 조성됐다.



제네시스가 호남 최초이자 국내에서 여섯 번째로 '제네시스 전시관'을 개관했다. 〈제네시스 제공〉

이 곳에서 고객들은 제네시스의 시그니처 티와 함께 호남 지역의 식재료를 활용한 다과, 지역 로스터리 커피를 즐기며 여유로운 휴식과 함께 제네시스만의 차별화된 환대를 경험할 수 있다.

'제네시스 광주'는 고객들이 제네시스 차량의 주행 성능과 감성을 폭넓게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승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광주호와 추월산 등 지역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활용한 '지역 특화 시승 코스'를 마련해 고객들이 제네시스 차량의 역동적인 주행 성능과 운전의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3층에 마련된 커뮤니티 공간을 중심으로 고객들이 제네시스의 디자인 철학과 라이프스타일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고객들은 ▲제네시스의 환대 철학을 차와 함께 경험하는 '다도 클래스' ▲제네시스 차량의 램프 디자인에서 영감을 받아 나만의 조명 오브제를 제작하는 '라이팅 오브젝트 클래스' ▲어린이들이 클레이를 활용해 자동차 디자인을 체험하는 '클레이 디자인 클래스' 등에 참여하며 브랜드의 가치를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다.

제네시스 관계자는 "'제네시스 광주'는 단순히 차량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공간을 넘어 브랜드와 고객이 깊이 교감하는 공간"이라며 "지역 특색을 살린 다양한 프로그램과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통해 호남 지역 고객과의 접점을 확대하고, 브랜드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선옥 기자

"국산 하이브리드 잘 나가네"…중고차 톱10 중 6개

첫차 '11월 중고차 시세전망'

5-10년차 TOP 10 평균 감가율 -68%

1위 기아 K8…테슬라 모델 3·그랜저 順

모바일 중고차 플랫폼 '첫차'가 데이터를 바탕으로 '11월 중고차 시세 전망'을 발표했다.

9일 첫차에 따르면 10월 첫차에서 구매 문의가 많았던 2016-2021년식(5-10년차) 중고차의 국산·수입 상위 10개 모델을 분석한 결과, 국산 TOP 10과 수입 TOP 10 모두 신차 대비 평균 -68% 수준으로 감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행거리 10만㎞ 이하의 2019-2026년식 친환경차 인기 순위에서는 기아 K8 하이브리드(노블레스)가 1위, 테슬라 모델 3(롱 레인지)가 2위, 현대 디 올 뉴 그랜저 하이브리드(1.6 캘리그래피)가 3위에 올랐다. TOP 10은 하이브리드 6개, 전기차 3개, 수소차 1개 모델로 구성됐으며 하이브리드 6개 모델은 모두 국산 브랜드다.



2026년 11월
친환경 중고차 판매순위·시세

친환경차 (단위 만원)

	모델	세부모델	연료	시세	신차대비
1	K8	노블레스	HEV	2,220 ~ 3,041	-47%
2	모델 3	롱 레인지	전기	3,303 ~ 4,469	-50%
3	디 올 뉴 그랜저	1.6 캘리그래피	HEV	3,498 ~ 4,731	-34%
4	모델 Y	RWD	전기	3,668 ~ 4,962	-31%
5	더 뉴 K8	시그니처	HEV	3,696 ~ 5,001	-26%
6	넥쏘	프리미엄	수소	1,596 ~ 2,328	-79%
7	그랑 콜레오스	1.5 E-TECH 아이코닉 2WD	HEV	2,875 ~ 3,889	-32%
8	디 올 뉴 니로 EV	에어	전기	2,279 ~ 3,132	-51%
9	더 뉴 쏘렌토 4세대	HEV 1.6 2WD 시그니처 5인승	HEV	3,630 ~ 4,912	-17%
10	더 뉴 K5 3세대	시그니처	HEV	2,816 ~ 3,810	-26%

출처 : 중고차 플랫폼 '첫차' 데이터센터 신차대비 : 동일트림 신차 출고가 대비 첫차 최저가 기준 누구나 잘 사는 중고차, 첫차
순위·시세 기준 : 2026년 10월 첫차 플랫폼 친환경 중고차 선호도 상위 10개 모델(2019-2026년식, 주행거리 10만km 이하)
* 본 보도자료의 11월 시세 전망은 2026년 10월 매물 데이터를 활용해 추정된 것으로,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9일 첫차에 따르면 10월 첫차에서 구매 문의가 많았던 2016-2021년식(5-10년차) 중고차의 국산·수입 상위 10개 모델을 분석한 결과, 국산 TOP 10과 수입 TOP 10 모두 신차 대비 평균 -68% 수준으로 감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행거리 10만㎞ 이하의 2019-2026년식 친환경차 인기 순위에서는 기아 K8 하이브리드(노블레스)가 1위, 테슬라 모델 3(롱 레인지)가 2위, 현대 디 올 뉴 그랜저 하이브리드(1.6 캘리그래피)가 3위에 올랐다. TOP 10은 하이브리드 6개, 전기차 3개, 수소차 1개 모델로 구성됐으며 하이브리드 6개 모델은 모두 국산 브랜드다.

연료별 가격대도 비슷한 구간에서 겹쳤다. 하이브리드 6개 모델의 평균 시세는 2천633만~4천349만원, 전기차 3개 모델은 2천710만~4천315만원이다.

기아 K8 하이브리드는 평균 2천633만원(최저 2천220만원)으로 하이브리드 중 가장 낮은 시세에서 시작하고, 기아 더 뉴 쏘렌토 4세대(HEV 1.6 2WD 시그니처)는 신차 대비 -17%로 감가 폭이 가장 작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현대 넥쏘(프리미엄)는 -79%로 감가 폭이 가장 클 것으로 보인다.

첫차 데이터센터 관계자는 "친환경 인기 순위 TOP 10에서 하이브리드가 가장 많은 6개 모델을 차지했고 시세도 전기차와 비슷한 구간에 형성됐다"며 "같은 예산이라도 연료와 연식, 트림에 따라 시세 차이가 큰 만큼 꼼꼼히 비교해보길 권한다"고 전했다. /박선옥 기자

금호타이어, 세아트 '레온'에 신차용 타이어 공급

프리미엄 고성능 '엑스타 HS52'

저소음·고속주행 안정성 등 강점



금호타이어 9일 "폭스바겐 그룹 산하 스페인 자동차 브랜드 '세아트(SEAT)'의 대표 콤팩트 해치백 '레온(Leon)'에 신차용 타이어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스페인 유일의 자동차 제조업체이자 글로벌 대표 브랜드인 세아트는 바르셀로나 감성의 감각적인 디자인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폭스바겐 그룹의 신규 고객 유입을 이끄는 핵심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4세대 '레온'은 폭스바겐 그룹의 MQB 플랫폼과 DCC 등 첨단 파워트레인을 공유해 정교한 주행 감각과 뛰어난 실용성을 제공하는 대표 모델이다.

레온에 공급되는 '엑스타(ECSTA) HS52'는 세단과 스포츠 차량 모두에 최적화된 프리미엄 고성능 타이어다. 〈사진〉

단단한 트레드 블록 구조를 적용해 접지 면의 마찰 압력을 균일하게 유지함으로써 노면 충격과 소음을 대폭 낮췄다. 또한 강성 숄더 블록 기술을 통해 핸들링 성능과 고속 주행 안정성을 끌어올렸다.

김인수 OE영업본부장 전무는 "이번 세아트 레온 OE 공급은 금호타이어의 독보적인 기술력이 폭스바겐 그룹 내 다양한 브랜드에서 폭넓게 인정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성과"라며 "유럽을 비롯한 글로벌 주요 시장에서 브랜드 경쟁력이 한층 강화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세계적 완성차 업체들과의 파트너십을 다각도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선옥 기자

